

2023. 12. 20.(수) 석간용

이 보도 자료는 2023년 12월 20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
공정경제담당관

공정경제담당관 김경미 2133-5360

공정경제정책팀장 주재영 2133-5362

누리집 [sftc.seoul.go.kr/mulga](http://sftc.seoul.go.kr/mulga)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: 4쪽

### 서울시, 고물가 속 '착한가격업소' 더 늘었다.. 올해 1,015개 돌파

- 연말 '착한가격업소', 지난 2월 대비 22%(181개소) 늘어난 1,015개소 넘어서
- 올해 지원금 3배 가량 늘리고 업종별 맞춤형 물품 지원 등으로 동참 유도 노력
- 신한카드와 환급(캐시백) 행사, 롯데카드는 위치기반 '내 주변 착한가격업소' 정보
- 시 "착한가격업소 지원 지속, 물가 안정 위한 민·관 협력 방안도 계속해서 발굴"

# 마포구 '민들레(맛있는밥집)'은 가정식 뷔페로, 백반과 10가지 이상 반찬부터 후식까지 단돈 7천 원에 즐길 수 있다. 깨끗한 매장과 정갈한 반찬으로 집밥 같은 손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손님들의 정평으로 이미 많은 단골을 확보하고 있다.

# 강동구 가나미용실(컷트 5,000원)과 한마음미용실(컷트 6,000원)은 어르신을 주요 고객으로 운영한다. 두 곳 모두 사장 혼자 일하고 있지만 인건비 지출이 없다는 점과 단골층을 대상으로 봉사한다는 마음이 낮은 가격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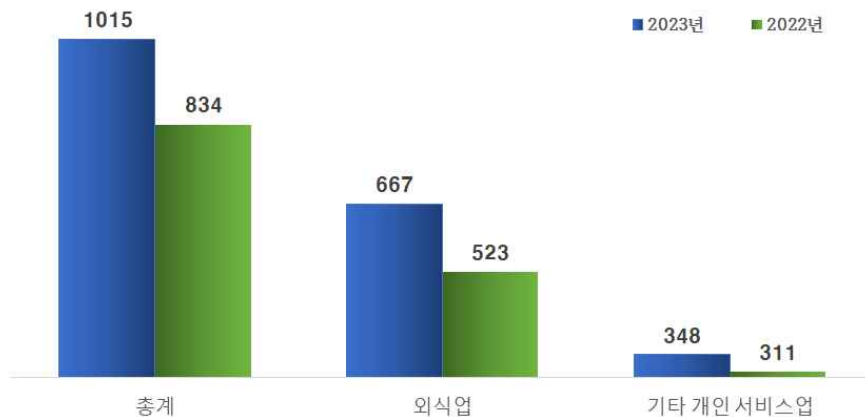
고물가로 장바구니가 가벼워진 가운데 서울 시내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'착한가격업소'는 올해 더 늘어났다.

서울시는 '착한가격업소'가 지난 2월(834개) 대비 22% 늘어 올 연말을 기준('23.12.)으로 총 1,015개를 돌파했다고 밝혔다.

○ ‘착한가격업소’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개인 서비스 요금·가격 안정을 유도, 지역 상권 물가 안정화를 위해 2011년부터 지정·운영해 온 제도로, 가격·위생청결도·종사자 친절도·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고 있다.

□ 서울시는 ‘착한가격업소’에 대한 지원금액을 기존에 연간 24만원에서 올해부터 76만원으로 3배 가량 늘리고, 쓰레기봉투·주방세제(외식업), 미용장갑·샴푸(이·미용업), 옷걸이(세탁업)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업종별 맞춤형 물품 지원 등을 확대해 착한가격업소 동참을 적극 유도해 왔다.

< 착한가격업소 개요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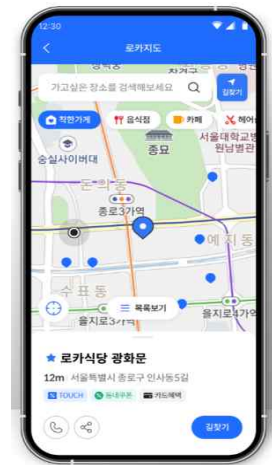


- ▶ 정의 : 주변 상권과 비교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외식,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
- ▶ 혜택 : 업종별로 필요한 맞춤형 물품 지원 및 착한가격업소 표창 제공
- ▶ 지정 : 834개('23.2월 기준, '22.12월 정비) ⇒ 1,015개(외식업 667개, 서비스 348개, '23.12월 현재)

□ 시는 더 많은 업주와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·관 협력 환급(페이백) 행사, 착한가격업소 정보 제공 등을 시행해 나간다.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가게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저렴한 소비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의 일환이다.

- 행정안전부와 함께 추진하는 신한카드 연계 착한가격업소 환급(캐시백) 행사는 이달 12.31.(일)까지 진행되며, 착한가격업소에서 신한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 시 1회당 2천 원을 환급(캐시백) 받을 수 있다.
- 신한카드 누리집과 신한카드 애플리케이션 행사 안내화면에서 최초 1회 응모 후 신한카드로 착한가격업소 결제 시 환급(캐시백)이 진행될 예정이며, 행사 기간 중 동일 업소 중복 사용 가능하고 1인당 최대 5회(최대 1만원)까지 환급(캐시백) 받을 수 있다.

- 또한, 12.18.(월)부터는 롯데카드와 협력하여 모바일 앱 디지로카(DIGI LOCA) 위치 기반 로컬 서비스 ‘내 주변’을 통해 앱 지도상 주변에 위치한 착한가격업소 위치 등 정보를 제공 중이다.



-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“고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지속해 나가는 등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·관 협력방안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